마음작용 소멸되면 '무여열반'

진여성 증득위한 17가지공관 안내

아뢰야식 · 중도 · 해탈얻는 길 설명

해심밀경 ㊥

글쓴이

묘 주

〈동국대, 강사〉

경전 속의 禪 사상 21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는 함께 닦아야 한다. 사마타만 있고 위빠사나가 없으면 그 사마타는 영상의 포로가 되고, 위빠사나만 있고 사마타가 없으면 그 위빠사나는 사실 그대로의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둘을 함께 행하여 사마타의 상태 위에 나타난 영상이 위빠사나의 인식대상이어야 한다.

▲수행자의 근기에 따른 수행법의 차이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수행법에 차이가 있다. 총명한 근기의 수행자는 법에 의지하는 지관을 행하고, 둔한 근기의 수행자는 남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므로 믿음에 의지하는 지관행을 닦는다. 또한 총명한 근기의 수행에도 별법(別法:한 경전의 교설 · 불교 各論)보다 총법(總法:일체경의 교설 · 진여)을 반연하는 지관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일대교설의 핵심 · 취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한다. 연기 · 무아 · 공 · 중도 등의 진리를 관통하여 사유함으로써 진여 · 보리 · 열반에 수순하고 나아가며 증득하도록 해야 한다.

▲고법과 관찰 대상자인 영상의 현현과 제거의 필요성

인도불교에서는 교와 선이 둘이 아니었다. 붓다의 교설(敎)을 사유 관찰하는 것이 선(禪)이었다. 그러므로 지관 수행에 들어가서 위빠사나의 대상, 즉 관조(觀照)의 대상의 곧 경전에 설해진 교법과 그 이치이다. 〈해심밀경〉에서는 알아야 할 교법(法)과 관찰 대상(義)에 대한 영상을 현현하고, 그 현현된 영상은 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설한다. 지관을 행할 때는 관조의 대상에 대한 영상이 현현해야 한다. 십지 이전에서는 영상이 현현될 정도로 사마타의 몰입이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현현된 영상을 제거해야 한다. 지관 수행중에 현현된 영상을 제거해야 한다. 지관 수행중에 현현된 영상을 없애지 않으면 무루(無漏)의 무분별지혜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전에서는 현현된 영상을 없애고 진여성을 증득하기 위한 17가지 공관(空觀)을 설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교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해밀심경〉의 제목이 '심오하고 비밀스런 진리를 해석함'이란 뜻인데, 그 심오한 진리를 이론문인 제2 승의 제상품 · 제3 심의식상품 · 제4 일체법상품 · 제5 무자성상품에서 밝힌다. 제2품에서 승의(勝義) 즉 일체법의 참다운 성품인 진여의 양상에 대하여 밝힌다. 진여는 현상계이니 본체계이니 하는 2가지 차별된 모습이 아니고, 사려 분별이 작용하는 경계를 초월한 것이고, 모든 것에 두루하고 한 맛으로 평등한 양상임을 말한다. 제3품에서는 공성(空性)이 성립하는 장(場)으로서 식(識)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범부의 정신세계, 특히 삼층식인 아뢰야식에 대하여 자세히 설한다. 우리들의 모든 인식과 행동의 결과가 종자로 아뢰야식에 저장되고, 이 식이 윤회의 주체임을 밝힌다. 제4 · 5품에서 삼성 중도의 이치를 밝힌다. 현상과 본질의 세계를 변계소집성(집착과 미망의 세계) · 의타기성(연기의 세계) · 원성실성(깨달음의 세계)으로 나누고 그 유(有)와 무(無)적인 측면을 고찰하여 중도의 이치를 설한다.

▲지관 수행의 장애와 다스리는 방법

사마타의 장애는 들뜸 · 후회 · 신체와 재물에 집착함이다. 위빠사나의 장애는 혼침 · 수면 · 의심, 그리고 성스러운 가르침에 대해 교의를 판별할 수 없어서 궁극적인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장애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마음이 들뜨거나 흥분할 때는 싫어할만한 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서 사유하면 들뜨는 것이 저절로 가라앉아 고요해진다. 반대로 마음이 침체 · 혼침될 때 기뻐할만한 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서 사유하면 혼침에서 벗어난다.

▲지관의 기능과 증과

지관의 기능은 인식적 속박과 존재적 속박에서 하는 것이다. 즉 청정한 계율, 들어서 이루는 청정한 지혜 · 사유해서 이루는 청정한 지혜로 지관을 수행함으로써 형상에 의한 인식적 속박과 번뇌종자에 의한 존재적 속박에서 해탈하게 한다.

끝으로 지관행이 이끌어내는 6가지 광대한 위덕으로써 마음이 일어나는 것 · 마음이 머무는 것 · 마음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 속박을 다스리는 마음이 증장하는 것 · 속박에 잡염된 마음이 감소하는 것 · 마음 작용의 범주를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을 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느낌의 작용이 소멸되면서 무여의열반에 들어감을 밝힌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②

무지에서 공까지 ㊥

해탈로 가는 데는 세 개의 출입구가 있다. 차별상이 사라진 해탈, 원하는 바가 없어진 해탈, 그리고 비어있음을 깨닫는 해탈이다. 덧없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이를 차별상이 사라진 데 기인한 해탈이라 한다. 괴로움을 온전히 깨달으면 원하는 바가 없어진 데 기인한 해탈이라 한다. 내가 없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비었음을 안 데 기인한 해탈이라 한다. 각기 그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셋 모두를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해탈한다는 것은 또한 불행한 순간을 다시는 맛보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그 밖에도 또 우리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한다.

완전히 해탈한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여전히 행동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말하고 여전히 온갖 의도나 목적에 유의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겐 '내가 생각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행한다'는 관념이 없다. 나를 여의고 난 뒤의 생각 그 자체, 말 그 자체, 행동 그 자체가 있을 따름이어서 업이 되지를 않는다. 체험은 있으되 체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일도 없다. 그것은 무지에서 공을 얻은 즉, 완전한 깨달음인 것이다.

상좌부불교에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깨달음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해탈로 가는 세 출입구

분별 · 욕망 · 자아 없어야

첫째 단계는 '흐름에 들어선 단계'인데 수행자가 열반을 한 번 보았고 성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실제인 것이다. 여기에 이른 사람은 이제는 도를 나아감에 있어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 때문에 좌절당하는 일이 없다. 일단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앞으로 구경 해탈을 이루기까지 아무리 많아야 일곱 생 이상은 더 몸을 받지 않는다. 그가 몇 번이나 더 태어나서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나의 통찰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반을 한 번 보았기에 이전에 겪어 오던 곤란 가운데 몇 가지를 이미 극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소득이라면 소위 '나'라고 부르는 따로 독립해 있는 인격체가 실재한다고 보던 견해를 버리게 된 것이다.

즉 자아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고 '흐름에 들어선 사람'이 무아를 언제나 끊임없이 자각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릇된 견해가 사라진 것 뿐이다. 아직 올바른 견해가 확고부동해지려면 거듭거듭 올바른 견해를 되새겨 자리잡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보강과정을 통해 거듭거듭 올바른 견해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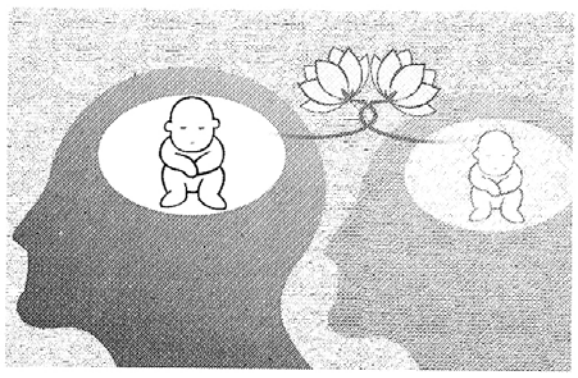
불법은 어떤 특별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납득을 그 기초로 삼고 있음에 틀림없다. 연속성은 존재하되 연속하고 있는 특별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속성에 잘못 속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안 이 몸뚱이 안에 무언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서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믿어 왔던 것이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가 그처럼 어려웠던 것이다. 알고 보면 일은 제 나름대로 벌어지고 있을 뿐이데, 하여튼 자유를 한번 스쳐본 것만으로도, 즉 흐름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우리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고 욕심과 성냄이 깡그리 없어진 것은 아니며, 아직 그것을 말할 단계도 아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그가 겪는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욕심과 성냄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미 그것은 이전처럼 강하지도 못하며 거친 방식으로 나타내지도 않고 단지 미세한 형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 학 산 책

보편문법



모든 언어 공통점 지녀

인종 ·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습득능력 있어

인간의 언어에는 인종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그리고 명백히 존재하는 인간의 정신적, 성격적, 육체적 차이와도 관계없이 존재하는 보편적인 문법이 존재한다. 이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은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언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단어나 절의 이동이 포함된 모든 문장의 변형은 문장 의존적이다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The Self is boundless.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Is the Self boundless?가 된다. 이 경우 의문문을 만드는 규칙은 간단히 문장의 3번째에 있는 단어 is를 맨 앞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은 보편적이지 않다. We are no longer upset by the play of opposites 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3번째의 단어가 아닌 두 번째의 단어가 맨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eople who are aware of the state of emptiness are free from sorrow 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종속절의 동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절의 동사를 옮겨야 한다.

또 한번 더 문장 구조에 종속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같은 문장 의존성 이외에도 전치사구와 같은 구를 형성할 때 핵심단어가 앞 혹은 뒤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우 "도서관에서" 라는 구에서는 핵심어인 도서관이 앞에 오는데 한국어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다른 모든 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에서는 "in the library"에서 처럼 핵심어가 뒤어 온다. 같은 언어에서는 이러한 특정 위치의 선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론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이와 같은 보편문법의 특성들이 모든 인간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 보편문법의 핵심이다. 인간의 언어들에 공통적 요소가 많다면 언어의 다양성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보편문법에 의하면 각각의 언어들은 그들 언어를 특정 방향으로 고정하는 변수들에 의해 특정방향이 정해진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특정 변수들과 보편문법을 알게되면 그 언어의 문법을 알게 된다.

보편문법은 유전적 유산의 일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신 속에 타고나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확인된다고 주장된다.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에 의하면, 이민간 아이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특정한 언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특정한 자질을 타고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은 인종과 탄생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언어습득능력을 타고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한다거나 틀린 문장에 대한 교정 없이도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주변으로부터 몇 안되는 문장을 듣고 이를 기초로 특정 언어에 맞는 변수를 고정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능력 타고 낳기 때문에 몇 개의 예만 들어도 예를 들어 핵심이 맨 앞이냐 맨 뒤냐는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결코 들어보지 않은 형태의 상당히 복잡한 구들을 문법적으로 옳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편문법에서는 언어능력은 정신 혹은 뇌안에 타고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정신과 육체의 절대적 분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